

온전한 사랑으로 경계를 녹이는 교회



로덴나무 그늘교회

날짜 : 2023.01.29
시간 : 오전 11시
장소 : 친구사이 사정전

예 배 순 서

예배의부름

사 회 자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찬 양

목마른 사슴

다 같 이

공 동 기 도

다 같 이

성 경 봉 독

히 11:13~16

다 같 이

찬 양

다비드 찬양대

설 교

그들을 위한 한 도시

준태 목사

성 찬 식

다 같 이

봉 헌

다 같 이

축 도

준태 목사

소 식

사 회 자

파 송

일어서서

*

예배시작 전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부름

사회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우리는 온 세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은혜로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매순간 우리의 호흡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찬양

다 같이

목마른 사슴

Martin J. Nystrom

As the deer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역

1.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 이 들 이
2. 금보 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만 족 주 신 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 갈급하 - 나 이 다
당신 만이 -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창보 배

주님 만이 -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창 소 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합 니 다

Copyright (C) 1984 Maranatha Praise Inc. Adm. By CopyCare Kore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Translated by All Nations Music. Approved by CopyCare Korea.

공동기도

아침기도 이해인

주님 오늘 하루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또 이웃 형제를 통하여 드러나는
당신 사랑을 보며
이웃을 저 자신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 실패를 하더라도 외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나약하고 겁이 많으며
마음은 쉽게 꺾여 방황합니다.
그러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힘껏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때가 익으면
저절로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 보겠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때가 차면 트이는 것그 어떤 걱정도
때를 앞당길 만한 힘은 없으니까요.

공동기도

아침기도 이해인

오늘 하루를 살고 다가올 내일을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분별해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매듭간 데를 모르는 고민도
하루 몫을 정해 놓고 알 길 없는 미래를 찾아
공연히 힘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이 겸허한 행위야말로
당신 바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자신을 맡기고
현실 속에서 일하는 것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실수를 곧 잘 저지르다가 하면
용기를 잃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혜는 저를 비춰주고
목표와 희망을 안겨줍니다.
특히 평화를-

당신의 사랑과 축복과 성령과 힘을 주십시오.

성경봉독

얇은 글씨는 사회자가, 굵은 글씨는 회중이 읽습니다.

● 히브리서 11:13~16 ●

13.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14.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5.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 같이)

16.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찬양

다비드 찬양대

예부터 도움 되시고

(찬송 71장)

설교

준태 목사

그들을 위한 한 도시

성찬식

성만찬 초대

이끄는 이 :

이 식탁은 예수께서 자기의 벗들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상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를 이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또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평화의 인사

이끄는 이 :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회중 :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끄는 이 :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회중 :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듭니다.

이끄는 이 :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중 :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성찬식

성찬 기도

이끄는 이 : 살을 가진 존재로 오셔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살을 맞대고 기쁨과 슬픔, 욕망과 좌절을 겪다 가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회중 : 서로의 표정과 몸짓 속에 깃든 따스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끄는 이 :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욕망과 기쁨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먹고 마심이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의 뱃들과 나누었던 위로가 되게 하소서.

회중 : 우리 모임이 반복될수록 다정해지며, 사랑스러워지며, 정의로워지며, 풍성해지게 하소서.

다 같이 : 창조주, 그리스도, 위로자를 기억하며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성찬식

성찬 집례

이끄는 이 : 이 잔치에서 사랑하는 우리가 모여 하나의 세계, 한 덩이의 떡임을 기억합니다.

회중 : 우리는 온 우주를 존재로 이끌어 준 급진적인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끄는 이 : 우리는 모든 것에 있는 선하심에 뿌리를 내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이 있게 하고자 합니다.

회중 : 거룩한 이 순간에 우리는 모든 창조물의 경외심과 신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끄는 이 : 예수의 마지막 만찬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았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중 :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이끄는 이 :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께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중 :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우리의 감사와 경배를 당신께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거룩하게 하소서.

성 찬 식

성찬예식

“사랑의 나눔”을 함께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사랑의 나눔

Taize

사랑의 나 눔 있 는 곳 에
하 나 님 께 서 계 시 도 - 다

Copyright (C) Taize. International Rights Secured.

감사기도

이끄는 이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회중 :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기로 다짐합니다. 아픔 속에서도
노래하겠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음식을 나누겠습니다.
외로움 가득한 그곳에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본 성찬문은 옥바라지 선교센터 기도서와 섬돌향린교회의 성찬문을 참조하였습니다.

봉헌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편 121편 정성실 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
너의 좌편에 그늘 되시니 -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 하나
그가 너를 지키시리 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 서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 다

Copyright (C) 1996 정성실. Adm. By KCMC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헌금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아래 계좌로 닉네임과 헌금 종류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약정, 주일, 보금자리, 사랑, 미지정)

카카오뱅크 7979-72-04893 ㄴㅇㅇ

축도

콘텐츠 목차

소식

1.

예배 후에 촛불 기도회가 있습니다.

2.

약정헌금을 새롭게 진행 중입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PrFPWJ3KruK3Yy497>

파 송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일 어 서 서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미움 다툼 혐오 차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